

김연수의 <모두에게 복된 새해>를 통한 다문화 감수성 발달 교육 내용 연구¹⁾

DOI <https://doi.org/10.30525/978-9934-26-496-2-8>

김지혜,
교육학 박사(한국어교육), 조교수,
명지대학교, 대한민국, 서울캠퍼스
Email: kimjh@mju.ac.kr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학습자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다문화 소설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다문화 교육에서 제시한 <다문화 감수성 발달 단계(Development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DMIS)> 모형을 검토하여 학습자들의 다문화 감수성 발달을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교육 철학적인 관점에 따라 검토했다. 다음으로는 김연수의 소설인 「모두에게 복된 새해-레이먼드 카버에게」(이후, <모두>로 표기함.)의 일인칭 서술자를 분석하였다. 이 소설의 일인칭 서술자는 난생 처음으로 문화적 타자를 대면하는 인물로, 문화적 타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술하여 다문화 감수성의 변화 과정을 보여 준다. 즉 교육 연구로서 이 연구는 다문화 소설의 일인칭 서술자가 하고 있는 다문화 경험의 진술이 학습자들의 다문화 감수성 발달에 도움을 줄 교육적 비계가 될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자문화중심주의를 극복해야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학습자들이 갖추어야 할 사고방식을 철학적으로 검토하여, 학습자들이 자문화중심주의를 각성하고 자문화중심주의로부터 비롯된 오해들을 반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타자의 실체를 지각하고 종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문화적 타자와 만나거나 소통한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 문화적 타자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해석학자인 가다머(H. G. Gadamer)에 따르면 인간이란 자신이 잘 모르는 존재에 대해서 파악할 때 그 존재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활용하며, 그 중에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문학작품을 읽는 독자는 작품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는 미학이론을 토대로, 일인칭 서술자 시점으로 문화적 타자와의 만남과 소통 장면을 재현한 김연수의 「모두에게 복된 새해-레이먼드 카버에게」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서술자가 고백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에 따른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감정들을 비판적 읽기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다문화 소설의 비판적 읽기를 통한 성찰의 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다문화 감수성, 자문화중심주의, 문화적 타자, 지각(Wahrnehmung), 종합(Synthesis), 김연수

¹⁾ 이 글은 2019년 12월 31일에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의 <국어교육연구> 제44집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http://dx.doi.org/10.17313/jkorle.2019.44.1>

BEYOND THE SHADOW OF ETHNOCENTRISM: CRITICAL READING OF THE FIRST-PERSON NARRATOR OF “HAPPY NEW YEAR TO EVERYONE”

DOI <https://doi.org/10.30525/978-9934-26-496-2-8>

Kim Jeehye,

Ph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ssociate Professor,

Myongji University, R. Korea, Seoul

Email: kimjh@mju.ac.kr.as

This study identifies solutions for enabling learners to overcome ethnocentrism and develop a cultural relativistic attitude. Students' first priority is to perceive and synthesize the reality of cultural others and to awake their preconceived biases and prejudices. However, this is a difficult task because people use their prejudices to determine reality when they have limited information of cultural others. Therefore, based on the argument that literary works feature characteristics that lead to the subject's social and personal reflections. This study focuses on Yeon-su Kim's short story, 'Happy New Year to Everyone-to Raymond Carver'. Through the perspective of first-person narrators, this novel portrays the problems that originate can encounters strangers. Moreover, the novel suggests that some problems related to emotions and thoughts, which may be triggered by heterogeneous others, may occur. By Reading this novel, readers can reflect on their cultural prejudices and notice the value of a cultural relativistic attitude. Therefore, "Happy New Year to Everyone" is a valuable as a material for multicultural education.

Keywords: *multicultural sensitivity, ethnocentrism, cultural others, perception (Wahrnehmung), synthesis(synthesis), Yeon-su Kim.*

I. 서론

이 글은 학습자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다문화 소설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다문화 교육에서 제시한 <다문화 감수성 발달 단계 (Development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DMIS)> 모형을 검토하여 학습자들의 다문화 감수성 발달을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교육 철학적인 관점에 따라 검토했다. 다음으로는 김연수의 소설인 「모두에게 복된 새해-레이먼드 카버에게」(이후, <모두>로 표기함.)의 일인칭 서술자를 분석하였다. 이 소설의 일인칭 서술자는 난생 처음으로 문화적 타자를 대면하는 인물로, 문화적 타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술하여 다문화 감수성의 변화 과정을 보여 준다. 즉 교육 연구로서 이 연구는 다문화 소설의 일인칭

서술자가 하고 있는 다문화 경험의 진술이 학습자들의 다문화 감수성 발달에 도움을 줄 교육적 비계가 될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 감수성 발달이 중요한 이유는 신자유주의의 심화 현상에 따라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로 이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한 이래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집계된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45만 명을 넘어섰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9). 245만 명은 국내 전체 인구와 대비 4.7%에 해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치가 5.7%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서 야기되는 다문화 상황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변화에 대한 사회적 통찰과 세계화 사회를 선도할 국민 양성에 대한 교육적 책임감을 국가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에서 다문화 문학을 명시적으로 다루기도 하였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총론에서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 공동체 의식, 세계 시민으로서의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핵심 덕목으로 기술하였다.ⁱⁱ 공교육의 차원에서부터 학습자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문학 분야에서는 다문화 문학을 통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응전하고 있다. 다문화적 갈등은 본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경험해보지 않은 문화적 특성을 지닌 '타자'와의 만남과 관계맺음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한국의 다문화 문학은 주로 국내의 국적·민족적·인종적 소수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의 형태에 주목해 온 경향이 있었다.ⁱⁱⁱ 스스로를 단일민족국가라고 인식하면서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가

ⁱⁱ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세부 항목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졌던 다문화 문학과 다문화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통합에 대한 내용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상위 항목에서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제시된 상황에 대하여, 류동규(2017:290-291)는 다문화 주제의 대한 우리 사회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ⁱⁱⁱ 한국의 다문화 문학은 첫째, 다문화 문제의 발생 배경으로 민족 중심주의적 국가 정체성의 문제를 검토하고 둘째, 이주민들이 처하게 되는 사회적 위치를 정치, 경제, 젠더 등과 같은 사회적 서발틴의 위치와 함께 조망하며, 셋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 양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공감 능력을 향상하고 상호 연대의식을 형성할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진되었다(김지혜, 2019-).

이주민들의 정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회적 성찰, 그리고 이러한 환경이 문화적 타자들 사이의 공존과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인간적 통찰이 있어 왔던 것이다.^{iv} 같은 맥락에서 다문화 교육도 주로 문화적 소수자들이 처하게 되는 모순적인 사회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사회적 변화와 발전에 대해 생각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었다.^{v5} 이러한 교육 내용들은 문화적 소수자들과 비교해 볼 때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우위에 처해 있는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소수자에 대한 이해심을 갖추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문화적 타자와의 공존과 소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타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을 하는 것과 함께, 문화적 타자를 만났을 때 주체가 경험하게 되는 낯설고 이질적인 감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생전 처음으로 마주친 문화적 타자로부터 야기될 감각은 무엇인지, 낯설고 이질적인 대상에 대한 주체의 직관이 과연 정당한지, 혹시 주체의 직관에 시대착오적인 가치관이나 문제적인 사고방식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직관에 내재한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개진되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인칭 시점의 소설은 서술자가 직접 자신이 타자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독자는 소설의 일인칭 서술자가 타자를 대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신의 상호문화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제 상황에서라면 낯선 존재를 마주한 이 상황이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성찰과 숙고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언어적 서술을 하는 소설에서는 이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꼼꼼하게 고찰하게 만들 수 있다. 다문화 소설의 일인칭 서술자는 예고 없이 맞이한 다문화 상황에서 문화적 타자를 직관적으로 대한다. 실제 상황에서는 찰나에 지나갔을

^{iv} 역사학계에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그동안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와 근대 이후의 유럽과 북미에 조절화되어 있었음을 문제 삼으며, 이것이 세계를 보는 국민의 시각을 편향되게 만들어서 다양한 세계인들과의 교류를 저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이영효(2003), 강성호(2017), 김덕수(2017) 같은 것들이 있다.

^v 지금까지 국어과 교과서에 실린 다문화 소설들로는 『나마스테』(박범신), 『완득이』(김려령), 『거대한 뿌리』(김중미), 『코끼리』(김제영), 『명량한 밥길』(공선옥) 등이 있다. 이 소설들은 공통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민, 또는 소수자로서의 편견을 견뎌야 하는 2세대들을 중심인물로 삼고 있다.

수 있는 그 순간은 독자는 시간을 들여서 읽는다. 그래서 독자는 문제적인 순간에 대해 고찰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일인칭 서술자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느낌 감정이나 생각, 또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설명한다. 언어적 발화 행위가 그 상대역을 전제하며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문학적 서술은 독자라는 상대역을 전제로 한 '가(假)-발화행위(pseudo-énonciation)'라고 할 수 있다. 일인칭 서술은 서술의 주체라는 역할과 소설 내적인 담화 참여자라는 역할이 교차된다. 상황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서술자와 상황의 내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인물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독자는 고도의 내재적 현실성을 부여 받는다(이양재, 1992:195-196).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독자는 일인칭 서술에 과거 시제와 외재적 시점이 혼재되어 있을 때, 서술자의 진술을 '증언'이나 '고백'처럼 인식하게 된다(박미선, 2003:220; 이양재, 1992:201). 그래서 일인칭 서술자 시점을 취하는 다문화 소설의 독자는 다문화 소설의 일인칭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그가 경험한 다문화적 사건을 추체험하고 그의 언행을 통해 드러나는 자문화 중심적 태도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요컨대, 일인칭 서술자의 진술을 읽는 독자는 서술자이자 초점화자인 인물을 따라 문화적 타자와 만났을 때 주체 내면에서 야기될 수 있는 직관적 감각들을 미리 경험할 수 있으며, 서술자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다문화적 사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문화 소설 교육의 내용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다문화 경험에 대한 일인칭 서술자의 내적 고백과 자문화적 각성 및 성찰 과정에 초점을 맞춘 김연수의 <모두>에 주목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다문화적 공존 상황과 상호문화적 소통 역량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찰하게 함으로써 세계시민적 태도를 함양하도록 도울 것이다.

II. 다문화 감수성 발달 단계에서 자문화 중심주의 성찰의 중요성

Chen, G. M. & W. Starosta(1996)은 '다문화 의사소통 능력'을 다른 문화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문화 차이를 받아들이며 타문화 집단 구성원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그 하위 항목으로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 행동적 차원을 제시했다. '다문화 감수성'은 그 중에서도 정서적 차원에 속하는 개념으로, 다른 문화 집단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요소로 이해된다. M. J. Bennet(2017)은 다문화 감수성을 부정, 방어, 최소화, 수용,

적응, 통합의 여섯 단계로 체계화한 <다문화 감수성 발달 단계 모형(DMIS)>을 제시했는데, 이 모형 전반부의 세 단계는 자문화 중심적 태도를 삼분(三分)한 것이고 후반부의 세 단계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삼분(三分)한 것이다. 이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는 부정, 방어, 최소화라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자문화 중심적 태도를 극복해야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DMIS은 학습자들의 다문화 감수성이 어떻게 발달되는지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학습자들이 상위 단계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교육 내용과 방법을 직접 안내하고 있지 않다. 다문화 감수성을 여섯 단계로 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다문화 감수성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학습자들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이동하기 위해서 제공받아야 할 학습 경험을 안내하지는 않는 것이다. 즉,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문화 감수성 발달을 위한 학습 “비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DMIS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다문화 감수성 발달을 단계적으로 발달시키도록 할 교육적 ‘비계’를 먼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위한 철학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다문화 감수성 발달의 핵심은 자문화 중심적 태도를 극복하고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확보하는 데에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I. Kant의 ‘타자 인식’ - ‘주체’의 자기중심적 사유방식을 넘어서기 - 논의를 주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I. Kant에 따르면 특정 인물을 ‘타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체 자신이다. ‘타자’란 실제로 존재하는 그 대상을 보고 있는 주체의 인식과 감각에 따라 “재현”된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타자’에 대해 갖는 인식과 감각의 문제는 주체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I. Kant는 문화적 타자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의 문제는 주로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주체’의 문제라고 보았다.

주체는 자신의 경험에 따라 인식과 감각을 확장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의 인식과 감각은 자신의 경험 세계에 국한되어 있다. 그래서 타자를 마주한 주체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낯설고 이질적인 감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진다. 이때 주체가 새로운 대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기존 세계로부터 얻은 감각’, 즉 선입견이다(H-G. Gadamer, 2015:152). 주체는 이를 통해 타문화성을 신선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낯설고 불편하다고 여기기도 한다(고모리요이치, 2015:75). 한편, 주체는 자신의 성장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경험을 통해 사회화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세계와 사물에 대해 국지적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와 사물에 대한 감각과 선입견은 아비투스(habitus)에 따른 문화적 사회화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vi}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I. Kant(2009:254 - 255)는 '유한자'라는 표현과 '직관(Anschauung)'이라는 표현을 썼다. I. Kant의 '직관'은 유한자인 인간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개념적이고 인식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대상을 상상해 내는 일을 뜻한다. '직관'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감각에 따라 시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직관'적 판단으로는 새로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다문화 감수성의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직관'이란 문화상대주의적이기보다는 자문화 중심적인 태도에서 시행된 감각을 의미한다.

타자를 '직관'해서 얻은 감정이나 생각은 유한자일 수밖에 없는 주체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주체는 자신이 낯설거나 새로운 대상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적 타자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I. Kant는 이 한계는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행위로부터 극복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대상의 진면모를 인식하는 것을 '지각(Wahrnehmung)'이라고 했다.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대상을 '지각'하게 된 주체는 이를 '종합(Synthesis)'해서 그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다(I. Kant, 2006:A99). 다문화 분야의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자문화 중심적 태도로 인해 생긴 편견과 선입견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문화적 타자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그의 진면모를 관찰해야 한다. 자신이 '지각'한 타자의 실체를 '종합'하면 그동안 자신이 문화적 타자에게 가졌던 감정과 생각들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자문화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성찰할 수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다문화 소설인 김연수의 <모두>를 중심으로 일인칭 서술자가 문화적 타자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어떻게 해서 다문화 감수성 발달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vi} 이와 관련하여 J. Ranciere(2011:28)는 주체가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가지게 되는 감각들은, 정치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사회 구도 안에서 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즉, 상호문화적 소통 문제는 특정 국면에 대한 주체의 정치적 감각이 타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과 관련이 있다.

Ⅲ. <모두에게 복된 새해>를 통한 자문화 중심주의 성찰 가능성: 일인칭 서술자의 비판적 읽기를 중심으로

김연수의 <모두>는 다문화 감수성이 낮은 사람이 낮은 타자를 대면하게 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의 문제를 꺾진하게 보여 준다. 이 소설의 일인칭 서술자는 외국인들과의 소통 경험이 전무(全無)한 한국 남성으로, 어느 날 아내가 가르치는 인도인 외국인 노동자의 방문을 받는다. '싱'이라는 이름의 이 학생의 방문 목적은 자신의 집에 있는 피아노를 조율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가 낮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몇 가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혼란 상태를 경험한다. 그런 점에서 이 서술자의 진술은, 문화적 타자가 자신과 유관한 존재로 자신의 생활세계로 진입한 상황에서 주체가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혼란 상태를 제시한 것에 다름 아니다. 독자는 이 진술을 통해 상호문화적 소통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자문화 중심적 감각과 사고방식에 대해서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이는 사태의 문제를 꺾진하게 인식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숙고하게 도울 것이다.

1. '직관'을 통한 타자 이해의 한계 알기

H-G. Gadamer(2015:145, 280)는 관념적으로 생성된 선입견이 경험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계몽주의자들의 생각을 비판하며, 그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경험이 선입견을 교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실체를 판단 근거로 삼고 선입견을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낮은 존재에 대한 인간의 사고방식은 일반적으로 선입견을 판단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다.^{vii} 또한 주체가 대상의 생명력과 외양에 압도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선입견을 성찰할 여유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모두>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체가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사고방식을 꺾진하게 재현한다.

<모두>의 서사는 문화적 타자를 만난 경험이 거의 없는 '나'와, '나'의 집에 피아노를 조율하러 온 인도인 '싱'을 중심으로 개진된다. '나'와 '싱'을 연결해 주는 사람은 '나'의 '아내'

^{vii} 그것이 가다머(2015:152)가 모든 인간은 역사 속에 있고 이성 또한 역사적인 산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한 이유이다.

로, 그녀는 '싱'이 다니는 한국어 교실의 강사이기도 하다.^{viii} 오 개월 동안 '아내'와 친해진 '싱'은 '아내'의 부탁으로 '나'의 집에 있는 피아노를 조율해 주러 왔다. '나'는 '아내'에게 '싱'의 방문 일정에 대해 사전에 전해 들었지만, 이를 특별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자신의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싱'의 모습, 터번을 두르고 턱수염을 기른 '싱'의 실존적 상태에 '당황'한다. '인도인'이라는 말로부터는 짐작하기 어려웠던 생생한 모습에 압도당해 버린 것이다.

사트비르 싱이라는 이름의 인도인이 집으로 찾아온다는 얘기를 미리 전해 들었음에도 막상 문을 열고 이 친구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당황스러웠다. (...중략...) 그렇게 턱수염이 덩수룩한 얼굴을 쳐다본 일도, 그렇게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손을 잡아본 일도 내게는 그제 처음이었다. / 무엇보다 황당하고 약간 실망스러웠던 일은 이 친구의 한국어가 형편없었다는 점이었다.(모두, 119)

또한 '나'는 '싱'의 '한국어가 형편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가 아내의 '친구'라는 사실에 의구심을 표한다. '영어를 잘 못하는' (모두, 137) '아내'가 어떻게 한국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과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었는지, 왜 자신에게 '싱'을 '말하자면 친구'라고 소개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싱'에 대한 '나'의 의구심은 '싱'이 '친구 관계'에 대한 '나'의 선입견을 벗어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싱'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정체성적 요소들-남성, 외국인 노동자, 부족한 한국어 실력-이 차례대로, 아내의 '친구'라는 존재적 위치에 대한 '나'의 직관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 친구가 아내와 친해졌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지만, 도대체 왜 이 친구와 아내가 친해져야만 했는지는 알지 못했는데, 막상 이 친구와 얘기해보니까 문제는 '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것임에 분명했다. (모두, 121)

“말하자면 친구”라니, 나로서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더구나 이 친구가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는, 더욱 알아듣기 어려웠다.

^{viii} 「모두」는 서사적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와 그 관계 구도에서 인물이 가지게 된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령 '나'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다른 관계를 맺고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별도의 정체성적 입장을 가졌을 수 있다. 싱, 또한 인도계 남성 외국인 노동자로서 사회적으로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그 입장을 소거한 채, '나'는 피아노를 조율해 주러 온 아내의 지인을 맞이한 집주인으로서만 재현되고, '싱'은 한국어 선생님의 집에 피아노를 조율해 주러 온 '학생'으로만 재현된다. 실제 상황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위치가 어렸으며, 각각의 위치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이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구성은 다문화 사회의 구조를 완전하게 보여 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단편이라는 한정된 길이 안에서 작품 내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결과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다 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는 식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한국에 돈을 벌려고 온 외국인 노동자와 내 아내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자체가 좀체 믿기지 않았으므로 (모두, 129)

'나'에 따르면 '나'가 '싱'과 '아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ix} 외국인 노동자와 내 아내가 친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자신과 다른 계급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에게 '싱'은 문화적 타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적인 타자이기도 하다. 이는 '나'가 현재 외국인 노동자와 자신을 계급적으로 이원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한 다문화적 감수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갖추지 못한 주체는 낯설고 이질적인 대상으로부터 받는 감각 정보를 자문화 중심적 태도에 따라 직관적으로 해석한다. 외국인과의 접촉 빈도가 낮은 '나'는 소설의 곳곳에서 자문화 중심으로 문화적 타자를 판단하려는 태도를 보여 준다.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싱'의 터번을 두고 '야한 빛깔' (모두, 120)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색깔에 부여한 감각들은 대부분 문화적이므로 자의적이고 상대적인 특성을 지닌다. 남성이 진한 핑크 색깔의 의복이나 장신구를 취하는 일이 거의 없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란 '나'에게 '싱'의 터번 색깔은 낯설고 생소한 대상이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스스로 핑크색에 부여해 왔던 생각에 따라 직관적으로 이를 '야한 빛깔'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사는 지역이나 종교적 분파,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서 터번의 색깔을 달리할 수 있다.^x 즉, 터번의 핑크빛을 야하다고 말한 것은 '나'가 자기 문화 중심적 태도에 따라 타문화의 산물을 판단하는 모습이 재현된 부분이다.

이처럼 <모두>의 서술자는 타문화성을 처음 접한 사람의 전형으로서 자문화 중심적 태도를 재현해 보인다. H-G. Gadamer

^{ix} 그러나 '나'가 아내가 말한 '친구' 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킨 계기는 그가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이다. 즉, 남녀간의 친구가 가능한가를 운운한 부분은 서술자의 자율규제(self-regulatory)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율규제란 자신의 생각이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다는 의식에 따라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는 해당 부분에 대한 초점화자의 윤리적 감수성을 반증한다.

^x 터번 착용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다. 주로 성직자는 흰색과 검정색을 착용하고 새신랑은 핑크색이나 붉은색 터번을 착용하지만, 인도의 편잡 지방처럼 다양한 색깔의 터번을 착용하는 곳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함. <http://www.dsource.in/resource/sikh-turbans/significance-color-sikh-turbans/https://dontmistakemeforamuslim.wordpress.com/2010/04/16/the-variety-of-styles-and-colors-of-turbans/>

(2012:145)는 선입견이 인간적 권위에 의해 생겨난 선입견과 경솔함으로 인한 선입견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모두>의 서술자의 사유를 쫓다 보면 문화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의 자문화 중심적 태도란 자기 우월적이거나 타자를 비하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고 경솔하게 자문화적 사고방식에 따라 타문화적 대상을 판단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모두>는 독자들에게 다문화 감수성이 떨어지는 서술자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자문화 중심적 태도가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자문화 중심적인 태도로 타문화적 속성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도울 것이다.

2. 타자 '지각' 을 하지 못하는 주체를 비판적으로 읽기

<모두>의 서사를 이끌어 가는 목소리는 '나'의 것이며, 그의 서술에는 과거에 대한 회상과 다른 인물들에 대한 생각이 혼재되어 있다. 과거에 대한 서술과 현재에 대한 서술, 내재적 진술 외재적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나'의 목소리를 읽는 독자는 이 소설이 서술자의 경험에서 비롯된 내면 고백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소설'이 만들어 내는 '거리'를 통해 서술자의 목소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즉, <모두>를 통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에서는 타자의 실제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도 그의 진면모를 '지각'하지 못하는 '나'를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독자들이 선입견과 편견이 '지각'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도 깨닫도록 할 수 있다.

<모두>는 싱이 '우리집'을 방문해서 피아노를 조율하고 아내의 늦은 귀가를 기다리는 한나절 남짓의 시간을 그 시간적 배경으로 삼는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한나절의 시간 동안 '나'와 '싱'은 적지 않은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데 이들의 대화는 대화의 화제나 초점화된 대상이 지속적으로 어긋나다가도 불현듯이 통섭되는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의 특성을 보여 준다. 먼저, 현관에서 이루어진 대화에서 '나'와 '싱'은 서로 다른 요소에 주목하며 말을 함으로써 어긋난 대화의 한 양상을 보여 준다.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대화 정도는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 이렇게까지 어눌할 줄이야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만히 서서 이 편잡 친구를, 이 야한 빛깔의 핑크빛 터번을, 이 까맣게 젖은 두 개의 눈망울을, 얼굴의 절반은 뒤덮고 있는 턱수염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는 매일 터번 쓰지

못하겠어요. 한국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공장에서 한 시간 버스 타야 합니다. 버스에서 술 취한 사람들, 알 카에다 말합니다. 버스에서 개새끼들 있습니다. 그치? 오늘은 명절, 터번 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모두, 120)

‘나’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자신의 터번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한 ‘싱’은 자신이 오늘 왜 터번을 쓸 수밖에 없는가를 해명한다. 그러나 ‘나’가 당황한 이유는 아내의 ‘친구’라고 소개받은 것 치고는 ‘싱’의 한국어가 너무 어눌했기 때문이다. 피아노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싱’과 ‘나’의 대화는 어긋난다. “이 피아노, 어떻게,” “이렇게 왔습니까?”라는 싱의 질문을 두고, ‘나’는 ‘저 피아노가 어떻게 우리집까지 오게 됐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모두, 127). 하지만 ‘싱’의 질문은 사실 이 피아노가 왜 오랫동안 방치되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었다.

우리가 외롭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 잠시 망설이는 사이, 이 친구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건반을 하나 눌렀다. 낮은 곡였다. 통명한 소리가 들렸고, 건반은 다시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중략) “이 피아노, 긴 시간 안 노래했습니다. 그치?” / 그제야 나는 이 친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알 수 있었다. / “맞아요. 나에게 이 피아노를 준 사람도 그렇게 말했어요. 딸이 열한 살 때 치던 피아노라고.” / “안 노래하면 안 삽니다.” / “그래서 공짜로 얻었습니다.” / “공짜는 없습니다.” (모두, 127-128)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두 사람 사이의 오해는 지속된다. ‘나’는 ‘싱’이 ‘안 노래하면 안 삽니다’라고 한 말을 ‘구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공짜로 얻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사실 ‘싱’이 한 말의 의미는 ‘연주하지 않는 피아노는 결국 죽게 된다는 뜻’(모두, 135)이었다. ‘나’의 대답이 엉뚱했던 것이다. 의사소통이론에서는 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말뜻이 계속 어긋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소통 상황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느낀다고 하였다. 의사소통 상황으로부터 ‘불확실성’을 느낀 참여자는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자신의 예측을 벗어난 답변을 빈번하게 마주하게 되면 자신이 그 대화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지를 회의(懷疑)하게 되기 때문이다.^{xi}

^{xi} 대화 참여자들은 대화 상대방이나 주제 등에 대한 자신의 인지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황에 대응하면서 대화에 참여한다. 적절한 대응에 대한 성공 경험은 소통의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실패 경험은 소통의 회피와 상대방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G. Gao & W. B. Gudykunst(1990)를 참고하였다.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문화적 타자 사이의 소통이 언제든지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해하라고 말한다. 이는 대화 참여자 중 누군가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언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대화 참여자들이 전제로 삼고 있는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의미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주체들은 불안감을 느낀다. 이 불안감을 잠재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문점을 물어보는 것이다(G. Gao & W. B. Gudykunst, 1990:301-317). 하지만 문화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미숙한 참여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C. R. Berger & R. J. Calabrese, 1975:99-112).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물어보아야 할지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W. B. Gudykunst, 2005:286). <모두>의 '나'는 상호문화 의사소통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미숙한 대화 참여자의 전형이다. 즉, 비판적 읽기의 대상인 것이다.

만약 한국어를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이 친구를 만난다고 나가서 보낸 그 많은 시간들은 무엇을 위한 시간들이었을까? 이상한 상상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궁금할 뿐이었다. (136)

싱과의 대화가 자꾸 어긋나자 '나'는 그와 아내 사이의 관계가 친구일 수 없다는 확신을 강하게 밀어 붙이면서 이들의 사이를 의심한다. '싱'과 마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를 이해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신이 경험한 '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도 못하며 '싱'에 대한 경험적 정보들을 '종합'하지도 못한 것이다. 그 결과 '나'는 상상에 의거하여 '싱'과 '아내'의 관계를 추측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추측은 어디까지나 '나'의 인식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문화 중심적인 것에 불과하다. 즉, '나'는 문화적 타자의 발화 의도와 목적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으로써, 마주한 타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모르는 주체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싱'이 '이 피아노가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우리가' 외롭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면서도(모두, 126) 피아노를 준 '노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노인과 피아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싱'은 피아노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노인의 이야기 속에 피아노가 오랫동안 연주되지 않았던 정황 정보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이 피아노,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습니까?” / 그 말에 당황한 나는 그 노인에게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중략...)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이 친구는 그제야 저 피아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긴 시간 얘기했지만 정작 내가 왜 저 피아노를 우리집으로 가져와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이 친구를 보고는, 어이가 없었다기보다는 아내가 이미 그 이야기를 모두 이 친구에게 들려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됐다.(모두, 130-133)

하지만 나는 ‘싱’이 터무니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생각하며, 아내와 ‘싱’의 관계를 또다시 의심한다. 문화적 타자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내려진 ‘나’의 결론에는 내적 모순이 포함되어 있다. 애초에 그가 ‘싱’의 존재나 ‘싱’과 아내의 관계를 의심한 까닭은 ‘싱’과 아내 사이에는 소통할 만한 언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내’가 ‘싱’에게 미리 모든 것을 말했을 것이라는 ‘나’의 의혹은 두 사람이 언어적으로 소통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모순된다. 즉, 이 장면은 ‘싱’이라는 존재에 대한 ‘나’의 편견과 ‘친구 관계’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에 내재한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독자들은 위와 같이 모순된 ‘나’의 서술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서술자에 대한 비판적 읽기 활동은 자문화 중심적인 주체에 대한 문화적 성찰로 이어져서, 자문화 중심적인 주체는 내면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문화적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현재 자신이 대면하여 소통하는 문화적 타자의 실체를 온전하게 지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성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장면에 대한 비판적 읽기-인물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비판하는 읽기-는 독자의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할 교육적 가능성이 있다.

3. 문화적 타자 ‘지각’을 통한 상호문화적 소통 상상하기

마지막으로 <모두>의 서사는 소설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토록 자문화 중심적인 모습을 보였던 ‘나’가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모습을 제시한다. 또한 자문화 중심적인 태도가 문화 상대주의적인 면모로 전환된 순간 이후 ‘나’의 감각과

인식, 이해의 폭이 확장되는 모습을 재현한다. 이러한 서사 국면은 독자들이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다문화 사회의 시민적 주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이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주목하여 소설을 읽는 활동은 다문화 감수성 함양 교육 내용으로 가치가 있다.

이 연구는 앞 장에서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불안과 불확실성이 통제되지 않은 주체가 어떤 문제적 상황에 처하는지를 확인하였다(W. B. Gudykunst, op. cit.; P. M. Durunto, T. Nishida, & S. Nakayama, 2005: 549). 불안과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어려운 주체는 의사소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의사소통 상황을 회피할 수 없다면,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자신의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가지게 된다. 문제는 이 불쾌감과 혐오감이 상대방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다문화 역량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대화 상황과 상대방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꼈을 때,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모두>는 소설적 상상력을 통해 불확실성과 불안을 조정하며 이루어 낸 문화적 의사소통이 지닌 가치와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래서 교실에서 학습자들이 이 부분에 주목하도록 한다면 학습자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모두>의 소설적 상상력은 '나'가 '싱'과의 서먹한 분위기를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싱'의 존재와 '싱'과의 의사소통에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던 '나'는 자신이 돌아갈 때까지 싱을 보내지 말라는 아내의 당부 때문에 할 수 없이 '싱'과 함께 아내를 기다린다. 무미건조하게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던 '나'는 '싱'에게 맥주를 권한다(모두, 136). 맥주를 권하면서도 나는 '싱'이 맥주를 안 마실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개선하겠다는 생각과 의지로 이를 단행한다. 맥주를 거절하던 '싱'은 '나'의 의도를 알고 제안을 수용하는 듯이 '나'와 함께 맥주를 마신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는 “아내와 이 친구가 만나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볼 수 있게 된다(모두, 136).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발생한 갈등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대상에 대해서 이해함으로써 그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현남숙, 2010:349). 그런 점에서 '나'의 질문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불안감을 통제하기 위해 한 시도로서 가치를 지닌다.

그러자 이 친구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 “혜진은 한국말 안 합니다. 혜진은 영어 말합니다.” / “영어? 혜진이 왜 영어로 말해?” /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내가 되물었다. / “혜진은 영어 말합니다. 저는 한국말 합니다.” / “혜진은 영어를 잘 못하는데?” / “저는 영어 잘합니다. 서로서로 배웁니다. 서로서로 고쳐줍니다” 그제야 나는 “말하자면 친구” 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다. 그건 내가 은근히 걱정한 것처럼 심각한 게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에게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쳐주는 관계였던 것이다. (모두, 136-137)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야기된 불안감이 해소되자 '나'는 비로소 '싱'을 제대로 지각한다. 그가 '시크교도'라는 것과, 편집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수염을 덩수룩하게 길러야 한다는 것, 피아노를 조율할 수 있고 라흐마니노프를 좋아한다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모두, 136). '싱'의 실체를 지각한 '나'는 비로소 이를 근거로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닫는다, '인도인'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생산한 자문화 중심적 태도를 깨닫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인도인 '싱'의 모습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다.

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게 그것뿐이었겠는가. 그가 시크교를 믿는 편집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수염을 덩수룩하게 길러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또한 컨테이너에서 함께 생활하는 열두 명의 친구들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턱수염을 길렀으리라는 걸 내가 무슨 수로 짐작할 수 있었겠는가. (138)

하지만 타문화적 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화적 타자와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능력은 서로 다르다. 앞에 제시한 부분의 '나'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용' 단계에는 이르렀지만,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면서 상호 소통을 하고자 노력하는 '적응'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모두>에서는 이 부분이 싱의 타자성을 수용하고 그의 존재를 인정한 상태의 '나'가 지속적으로 그가 아내 사이의 소통 가능성을 의심하는 모습으로 재현되어 있다. 심지어 '나'는 불완전한 언어 능력으로는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없다고 단정 짓는 모습을 보인다. 상대방과 자신 사이의 문화적 '차이'는 인정하더라도, 인간관계의 측면에서나 공동체의 측면에서 그와 자신이 인간적 유대를 맺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혜진은 영어를 잘 못하고 당신은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
그래가지고서는 서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합니다.
(모두, 138)

그러나 '나'는 싱과 아내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의사소통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차 이들이 진정한 소통을 나누는 그야말로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아내와 함께 갔던 오타루 여행에서는 알지 못했던 아내의 속마음을 싱으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싱'과 '아내'의 의사소통 방식과 태도는 '나'에게 진정한 소통이란 언어적 능력을 뛰어넘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통찰을 제공한다. 틀린 부분을 서로 고쳐 주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 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언어적 표현이 서투르거나 문법 사용 방식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혜진 영어 잘 못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한국말 잘 못합니다. 혜진 영어 말하면 저는 한국말 합니다. 서로서로 틀린 부분을 고쳐줍니다. 항상 저는 아끼 원하겠습니다. 저는 이 코끼리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저는” / 그리고 이 친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lonely'라는 게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다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해서.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모두, 140~1)

이 소설의 작가는 이 작품의 집필이 '데미언 라이스(Damien Rice)의 <Elephant>를 듣고 굵직한 문장에서 시작' 되었으며 '다 쓰고 몇 달이 지난 뒤에야 그즈음 한창 번역하던 레이먼드 카버(R. Carver)의 소설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김연수, 2016: 317). 작가가 비슷하다고 밝힌 소설인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은 시각 장애인인 아내의 친구가 자신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대성당의 그림을 함께 그리면서 그 성당에 대한 느낌을 공유할 수 있었던 남편을 초점화자이자 서술자로 삼은 일인칭 소설이다. 코끼리 그림과 아이 그림을 나누면서 외로움이라는 인간적인 감정을 공유하고 '말하자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관계로까지 나아가는 '아내'와 '싱'의 모습은 다문화 감수성의 발달이 문화적 타자들 사이의 상호문화적 소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적 관계 구축까지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돕는다는 점에서 다문화 교육적으로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이 장에서는 이 소설이 다문화 감수성 함양 교육의 내용으로 제시될 때 독자들이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과 각

부분에서 생각해보아야 하는 다문화 감수성의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소설은 문화적 타자들 사이의 사회적 공존과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이(異)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조정하고자 하는 주체의 노력과 의지, 그리고 언어적인 소통 장벽이 다소 존재하더라도 진정한 소통을 시도함으로써 상호간의 인간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이 소설의 일인칭 서술자를 따라서 읽거나 거슬러 읽으면서, 문화적 타자에 대한 자신의 직관을 스스로 점검하고 성찰하면서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 관계로 구현된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교육 내용으로 제시될 가치가 있다.

IV. 결론

이 논문에서는 M. J. Bennett(2017)의 다문화 감수성 발달 단계를 중심으로 자문화 중심적 사고방식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 학습자가 문화 상대적 태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해야 할 자문화 성찰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교육철학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소설의 독서가 학습자들의 사회적 성찰과 자아성찰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 하에 자문화 중심적 태도를 극복하는 인물을 초점화자이자 서술자로 삼은 김연수의 <모두>에서 다문화 교육의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문학 교육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문학 제재를 통한 교육의 효용성을 수차례 논의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국내 이주민들이 처하게 되는 사회적 위치와 문화적 타자로서 경험하게 되는 불편한 경험들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갖추어 나가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문화 교육 내용은 각별히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이해, 그리고 시민적 포용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회적 의식을 토대로 제시되어 있어서, 자문화 중심적 사고방식에 경도되어 있는 학습자들이 어떻게 하면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갖출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김지혜, 2019 7:192).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회적 구성원들이 상호 공존 상황에서 인간적 유대와 사회적 연대를 통해 통합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객관적으로 자문화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문화적 타자에 대한 인정과 수용을 시작으로 상호협력적인

소통 능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 감수성 발달 연구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자문화 중심적 태도를 극복하고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선행되어야 상호문화적인 소통과 협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문학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을 허구적으로 재구성해 보인다. 독자가 읽고 있는 소설 속 사건과 인물들의 형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진실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소설은 허구적 형식이라는 본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독자에게 세계에 대한 미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소설의 독서 현상에 구축되어 있는 미적 체계는 독자가 소설 속에 재현된 사건과 상황에서 촉발된 자신의 경험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문화적 타자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낯선 이방인과 한나절을 보내야 하는 인물을 서술자이자 초점화자로 삼고 있는 김연수의 <모두>가 다문화 감수성 함양 교육 제재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모두>의 서술자는 낯선 이방인을 처음 마주하였을 때 느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낯선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고백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자신과 그 사람과의 소통과 관계 형성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재현해 보이기 때문이다.

<모두>의 서두는 서술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있는 문화적 타자를 보았을 때 느낀 감정과 생각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문화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극복하지 못한 한국인 독자들은 '나'가 '싱'에게서 느낀 불편함에 공감하면서 심리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의 서술자는 낯선 타자에게서 오는 이질감과 불편함을 토로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그로부터 양산되는 여러 오해들에 대해서 성찰하며 그것을 해소할 방법을 고민한다. 문화적 타자에게 느끼는 감정으로부터 '나'와 공감의 연대를 구축한 독자들은 '나'의 서술을 쫓아 '싱'의 고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나'가 낯선 이방인이지만 자신의 집에 방문하여 피아노를 조율해 주고 있는 '싱'에 대한 감정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독자도 '나'와 함께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모두>가 다문화 감수성 교육 내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바로 그것이다. 독자는 '나'의 서술을 통해서 문화적 타자를 마주하였을 때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회상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자문화 중심적인 것들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학습자들이 문화적 타자와의 공존과 소통 상황에서

벌어질 문제를 미리 생각해 보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감각과 생각들에 대해 숙고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제재로서 가치가 있다.

참고 문헌

1. 강성호(2017), 「한국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과 서구중심주의」, 『서양사론』, 한국서양사학회, pp. 139-161.
2. 고모리요이치(小森陽一), 배영미 역(2015) 『인종차별주의』, 푸른역사.
3. 김덕수(2017),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과정 개정 현황과 쟁점」, 『역사교육』 141, 역사교육연구회, pp. 1-33.
4. 김연수(2016), 『세계의 끝, 여자친구』, 문학동네.
5. 김지혜(2019ㄱ),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김지혜(2019ㄴ), 「다문화 소설에 대한 비판적 이해 교육 내용 연구」, 『국어교육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 33-70.
7. 류동규(2017), 「상호문화성 형성을 위한 다문화 소설교육 - 박범신의 장편소설 『나마스테』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65, 국어교육학회, pp. 289-314.
8. 박미선(2003), 「순이 삼촌의 1인칭 화자의 역할과 그 서술적 효과」, 『국영주어문』 제5집, pp. 209-222.
9. 법무부·통계청(2019), 《2019년 9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 통계청 배포 자료.
10. 이양재(1992), 「까뮈의 이방인에 나타난 1인칭 서술의 효과」, 『프랑스학연구』, 프랑스학회, pp. 193-209.
11. 이영효(2003), 「세계사교육에서의 '타자 읽기': 서구중심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를 넘어」, 『역사교육』 86, 역사교육연구회, pp. 29-59.
12. 현남숙, 「다문화 시민성 확립을 위한 의사소통교육의 중요성」, 『시대와 철학』, 21 (4), 한국철학사상연구회, pp. 335-362.
13. Bennet, M. J.(2017),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Resarchgate*, DOI: 10.1002/9781118783665.ieicc0182.
14. Berger, C. R. and R. J. Calabrese, "Some explorations in initial interaction and beyond: Toward a developmental theory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 1975, pp. 99-112.

15. Chen, G. M. & W. Starosta(1996),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A synthesis”. *Communicaion Yearbook* 19, pp. 353–385.
16. Duronto, P. M., T. Nishida, Aand S. Nakayama, “Uncertainty, Anxiety, and avoidance in communication with strange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2005, pp. 549–460.
17. Gadamer, H-G.(2015)(1960), *Wahrheit und methode: grundzü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임홍배 역, 『진리와 방법 2』, 문학동네.
18. Gao, G. and W. B. Gudykunst, “Uncertainty, anxiety and ada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 14, 1990, pp. 301–317.
19. Gudykunst, W. B.(2005), “An anxiety/uncertainty management (AUM) theory of effective communication: Making the mesh of the net finer”, in W. B. Gudykunst(ed), *Theorizing about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ousand Oaks, CA: Sage.
20. Kant, I.(1981), *Kritik der reinen Vernunft*, 백종현 역(2006), 『순수이성비판 1』, 아카넷.
21. Kant, I.(1790), *Kritik der urteolskraft*, 백종현 역(2009), 『판단력비판』, 아카넷.
22. Rancière, J.(2007), *Politique de la littérature*, 유재홍 역(2011)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3. Samochowiec, J. & A. Florack(2010), “Intercultural contact under uncertainty: the impact of predictability and anxiety on the willingness to interact with a member from an unknown cultural group”,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4.
24. <http://www.dsource.in/resource/sikh-turbans/significance-color-sikh-turbans/https://dontmistakemeforamuslim.wordpress.com/2010/04/16/the-variety-of-styles-and-colors-of-turbans/>